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교과문화원 특채 쟁점

장휘국·장만재 교육감 국정화 추진 반대, 與 공세 예고

아시아문화원은 공채 선발...문화개발원 일부 무시험 채용

■ 시도교육청·전당 오늘 국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의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문화원 직원 특채 논란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선 위원장, 박해자 위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10여명으로 구성된 감사 1반은 이날 오전 문화전당에서 현장 시찰을 한 뒤 오후에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에 대한 현장시찰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전당은 최근 기존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고 공개채용을

거쳐 직원을 채용했다. 실제 문화원 채용을 염두에 두고 2년여 동안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근무해온 200여명의 직원들이 채용시험에 응시, 17명 만이 합격했다. 문화개발원 일부 직원들은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에 포함돼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문화전당 콘텐츠(전시, 공연, 운영프로그램) 확충방안, 아시아문화원 설립 지연 문제, 문화전당 개관 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국감 일정이 문화전당 시찰이기 때문에 감사나 질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광주·전남 교육청=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등 전국 10곳 교육감이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 광주·전남 주요기관 국감일정

일시	장소	기관
9월 15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찰	
9월 15일 오후 2시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9월 18일	대전ETRI	광주과기원
9월 18일 오전 10시	한국전력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9월 21일 오전 10시	광주국세청	광주국세청
9월 22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광주본부
10월 1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영산강유역환경청
10월 6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국회	전남도, 전남대, 전남대병원
10월 6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 반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광주·전남 교육청은 반발 성명을 내는 등 정부에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시각 및 보조금 지급 여부 등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형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野, 정중섭 탄핵안 제출

최경환 부총리는 보류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탄핵소추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수'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인용, "정 장관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복수정당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원내 지도부는 이를 거쳐 일단 보류했다.

한편, 중앙선거위원회는 "정중섭 장관과 최경환 총리의 발언은 선거법위반 아니다"라고 밝힌 뒤 "하지만, 정중섭 장관의 경우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행위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경환 부총리 기재부 국감 질의 응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전남도당, 10·28 재보선 후보 공천 추진 논란

혁신위 결정에 위배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당 소속 당선자의 잘못'으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 혁신위원회 결정을 추진·인준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전남에서 치러지는 이번 10·28 재보선의 합평 도의원 보궐선거, 목포 기초의원 보궐선거, 신안 기초의원 재선거 등 3곳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공천신청을 받고 있다.

합평 도의원 보궐선거와 목포 기초의원 보궐선거, 신안 기초의원 재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돼 치러진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혁신위원회 결정과는 별개로 10·28 재·보궐선거 공천작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국감 브리핑

"KTIX 개통 광주공항 여객 급감...대책 시급"

천정배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서구을) 의원은 14일 "KTIX 개통 이후 항공 여객이 급속히 감소, 타격을 받는 지방 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은 KTX 호남선 개통 이후 광주-김포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7월부터 하루 2회 감편 운항 중"이라며 "항공운임인하 또는 착륙료 면제 등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광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제주노선 증편과 신규 노선 개설도 제시했다. 그는 "광주-부산 간 취약한 항공 노선 등 인프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양 지역간 경제교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공항항공 노선제도 도입을 통해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광주-인천공항 노선도 수요파악을 통해 신규노선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중기청 전남동부사무소 설치해야"

이정현 새누리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순천·곡성) 의원은 14일 "전국 광역단체 중 전남과 경북만 중소기업청 또는 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원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중기청 전남동부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전남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11만7325개로 이중 5만7000개가 전남 동부권에 위치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광주·전남청은



광주에 있고 전남도청과 유관기관들은 서부권으로 일괄 이전, 동부권의 중소기업 등은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중소기업과 직접 접촉하여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방조직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청 전남동부지방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국감 현장

"최경환, 중진공 직원 채용에 압력" 논란

이원욱 새정치 의원 "사무실 인턴 합격시켜달라 청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14일 국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3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바로 친박 실세이자 최근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최경환 부총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진공이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36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과 임원면접에서 탈락한 A씨의 점수를 변경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이 의원은 최부총리가 2009~2013년까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임재은 이사장은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 (청탁여부에 대해)모른다"면서 "감사원 요구대로 관련 실무자를 징계처분 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4등 - 족욕기(10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